

과학영재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채유정 · 이영주*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A Study on Science Gifted Students' Perceived Parental Behavior,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Chae Yoojung · Lee Young Ju*

KAIST GIFTED (Global Institute For Talented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among gifted students' perceived parental behavior of their parents,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sample includes 91 6th-11th grade gifted students enrolled at a gifted program in a University. The surveys, administered in March, 2012, assess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parental behavior of the parents of gifted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the researchers, using SPSS 18.0.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Each of the 10 item's mean score is over 4.0, and the total mean scores on self-esteem is 4.36 out of 5 (SD=.546), showing positive responses. 2) The mean scores of two asp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were close to 4, showing positive perception. 3) The mean scores on perception of a father's and a mother's behavior are at 3.89 and 4.10, respectively; the three factors of perception among fathers (care, trust, and respect) are close to 4.0, while care (3.57) was somewhat low; the perception among mothers is at 4.31 (care), 4.20 (lesson), 4.01 (respect), and 3.96 (trust), showing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fathers and mothers. 4) The correlation existed between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self-esteem and the four aspects of parental behavior, and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arental behavior. 5)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respect ($\beta = .422, p < .001$) among fathers, and trust ($\beta = .450, p < .001$) among mothers affected students' self-esteem; lessons ($\beta = .414, p < .001$) and trust ($\beta = .280, p < .01$) among fathers and lessons ($\beta = .450, p < .001$) and respect ($\beta = .331, p < .01$) among mothers affected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limitation, and future study ideas are suggested at the end of this paper.

Key words: Gifted students,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Parental behavior

I. 서론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발표 이후 2002년 3월부터 전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이 법적·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국의 우수한 영재들이 본인의 재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 지식습득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의적인 요소들, 즉, 신념이나 태도, 정서 등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Goleman(1995)은 성공적인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보다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는 정서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영재학생들은 특수한 상황, 즉 지능과 사회·정서발달에서의 불일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Davis, Rimm, & Siegle, 2011). 또한, 영재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지적, 정서적 요구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아존중감의 하락, 사회적 거부, 고독, 우울증, 스트레스와 함께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로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부모는 영재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 및 또래 환경과 함께 매우 중요한 환경요소 중 하나이다. 한 아

*교신저자: 이영주(ylee2@kaist.ac.kr)

**2012.06.11(접수), 2012.09.17(1심통과), 2013.03.19(2심통과), 2013.04.22(3심통과), 2013.04.22(최종통과)

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인물이 부모이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인식하고 양육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정서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현재 영재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이 어떠한지 조사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관계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스스로를 인정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Bandura, 1986; Blascovich & Tomaka, 1991), 자신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주변 사람들, 즉 부모나 교사, 또래, 또는 의미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성장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존중이나 관심, 성공적인 경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김영숙, 1999; 손화희, 윤중희, 1990; 임화성, 2006; Stephanie, 1990).

영재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 모두 존재한다. 즉,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Gross(1993, 2000)의 연구에서는 IQ가 160 이상인 1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재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 점수가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능 지수가 매우 높은 아동들은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서적 지원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전의 많은 선행 연구에서의 주장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Forsyth, 1987; Hollingworth, 1942; Lea-Wood & Clunice-Ross, 1995). 그러나 이와는 달리, Colangelo 와 Kelly(1983)의 연구에서는 영재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아닌 학업적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결과, 영재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업적 자아존중감은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아존중감을 분리하여 비교해보았을 때 다른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영재학생들이 일반학생들보다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해외 영재학생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박상표, 2009; 박혜원, 하정연, 문지혜, 2011; 윤초희, 윤여홍, 김홍원, 2004).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나라 영재학생들의 특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기위해 좀 더 다양한 영재학생 집단을 포함한 연구 설계, 연구수행 및 자료분석이 요구된다.

자아존중감과 함께, 자기계발 및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서지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연구해온 Mayer와 Salovey(1990)에 의하면, 정서지능이란 '사회지능의 하위 요인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모니터하고 구별하며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용린(2011)은 정서지능을 '이성능력인 사고능력을 발휘하게 하거나 또는 억압하고 제한하기도 하는 감성능력(p.18)'이라고 하였으며, Mayer와 Salovey(1997)의 연구에서는 정서를 인식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인지를 촉진하여 감정을 발생시키는 능력, 정서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설명하였다(백은주, 2005).

Salovey와 Sluyter(1997)은 정서지능을 네 영역의 네 수준, 총 16가지의 요소가 포함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네 가지 영역은 첫째, 정서를 정확히 인식, 평가, 표현하는 능력, 둘째, 사고를 촉진하는 정서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셋째, 정서 및 정서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정서의 반영적 조절능력이다(백은주, 2005). 각 영역은 네 가지 수준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복잡하고 세련된 능력이라 볼 수 있다. 네 개 영역, 네 개 수준, 총 16가지 요소 모형은 <표 1>과 같다.

Mayer와 Salovey(1997)의 모형을 바탕으로 문용린(1999)은 청소년용 정서지능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지는 기존의 네 영역(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지식의 활용, 정서의 반영적 조절)에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한 '감정이입' 영역까지, 총 5개 영역,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서의 인식과 표현영역에서는 자신과 외부의 정서를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둘째, 정서의 사고촉진 영역에서는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정서이용 능력에 대한 질문들

표 1
Salovey & Sluyter(1997) 정서지능 모형(백은주, 2005, p.10)

영역	수준	요소
정서의 인식과 표현	1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기
	2	자신의 외부의 정서를 파악하기
	3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4	표현된 정서들을 구별하기
정서의 사고촉진	1	정서정보를 이용, 사고의 우선순위 정하기
	2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기
	3	정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관점 취하기
	4	정서를 활용하여 문제해결 촉진하기
정서지식의 활용	1	미묘한 정서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명명하기
	2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기
	3	복잡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이해하기
	4	정서들 간의 전환을 이해하기
정서의 반영적 조절	1	정적 부정 정서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2	자신의 정서에서 거리를 두거나 반영적으로 바라보기
	3	자신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반영적으로 보기
	4	자신과 타인의 정서 조절하기

이, 셋째, 정서지식의 활용 영역에서는 과제수행이나 문제해결에 있어 복잡한 정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들이, 넷째, 정서조절영역에서는 객관적으로 정서를 바라보고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 유지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한 질문들이, 마지막으로 감정이입 영역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영재학생들이 일반학생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영재학생들이 호기심이 많고 독립심이 강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심리적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며(Gallucci, Middleton, & Kline, 1999; Garland & Ziegler, 1999; Richardson & Benbow, 1990; Terman, 1925) 그들의 부모 역시 헌신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므로(이군현, 1990) 영재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영재학생들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능력이 더 뛰어나며 정서 및 내적 역량에 있어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영재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잉행동을 보이고 까다로우며,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반항적이고 비협조적이며, 참

을성이 없고 관행이나 예절, 규칙이나 권위에 의문을 갖고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등의 부정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Davis, Rimm, & Siegle, 2011). 영재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본인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하며, 소수의 고도영재 학생들은 극도의 긴장감 및 부적응을 보여 상담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Hollingworth, 1942),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영재학생들은 독립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영재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Clark, 1997). 가정에서 아동의 영재성이 발견되고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가치관과 생활 규범을 익히며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영재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영재집단의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수용적이며 자율적인 태도를 보인다(Bloom, 1985; Van Tassel-Baska, 1989). 또한, 영재아의 어머니는 일반아동의 어머니보다 구체적인 행동들, 예를 들면, 책을 읽어주는 행동, 음악을 들려주고 그 외의 교육활동에 참여시키는 행동 등을 통하여 아동의 재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조석희 & 한순미, 1986), 과제 수행에

있어서 아동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아동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거나,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는 정도의 역할을 제공한다. 그리고 아동의 수행수준이 기대만큼 높지 않을 때에도 심리적 지지를 보이므로(조석희, 1987)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과제수행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 특히 양육행동의 하위 영역인 반응성, 합리적 지도, 애정성 등은 자아존중감과의 단순한 정적관계를 넘어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김세루, 홍지명, 홍혜경, 2010). 즉, 어머니가 의미있게 반응해주고 합리적으로 지도하며 아동에게 애정을 보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아버지의 자율성, 애정, 성취지향적 태도 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김은경 & 유가효, 2002; 성현숙, 광미용, 이성실, 2006). 구체적으로, 칭찬, 격려, 존중의 말, 행동 등이 아동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일방적 지시와 명령, 사랑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거친 말이나 행동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윤선영, 정혜숙, 2010). 요약하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며, 애정 표현과 더불어 칭찬과 격려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지능과도 관련이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지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보면,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타인조절 및 표현, 자기조절 및 활용, 감정이입, 정서인식 네 영역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0). 또한, 어머니가 온정,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아동의 정서지능 또한 높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행동,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아동들은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 및 활용에서 높은 능력을 보이며, 부모가 수용적이고 격려하며 성취를 지향하는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의 정서지능 또한 높다(오영미, 1997; 이광자, 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달리, 아버지의 양육행동 요인은 아동의 정서지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아버지의 온정, 수용, 관심, 존중과 같은 양육행동이 아동

의 자기관련 정서지능과는 정적 관계를 보이거나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박영애, 최은경, 2001).

최근 몇 년간 영재학생들의 부적응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어 영재학생들의 정서발달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많은 연구들이 주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영재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이에 따른 학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및 부모 양육태도를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 대해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및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영재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D광역시 소재 교육청 지원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은 1년 과정으로, 봄, 가을학기 약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에는 집중캠프를 통하여 과학 연구활동 및 인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총 91명의 학생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그 중 남학생이 64명, 여학생이 27명으로 표집집단의 약 70%와 30%였다. 학교 급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 24%, 중학생(1-3학년)이 57%, 고등학생(1-2학년)이 19%의 비율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보다 자세한 현황은 <표 2>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자아존중감 척도, 정

표 2
연구 대상의 성별 및 학교급 별 현황

	남	여	합계
초등(6학년)	15(16.4%)	7(7.7%)	22(24.1%)
중등	39(42.9%)	13(14.3%)	52(57.2%)
고등	10(11.0%)	7(7.7%)	17(18.7%)
합계	64(70.3%)	27(29.7%)	91(100%)

서지능 척도,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총 세 가지이다. 각각은 다음과 같다.

1) 자아존중감 척도

영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 평가하고 얼마나 수용하는지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965)가 개발, 전병재(1974)가 변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매우 그렇다(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응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문항의 신뢰도는 .90이었다.

2) 정서지능 척도

정서지능 척도는 1999년에 문용린이 개발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검사 문항을 기초로 수정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백은주(2005)는 기존의 청소년용 검사도구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과학교육 전문가 집단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2차에 걸친 수정보완을 통해 연구에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원 검사지가 4점 척도인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백은주(2005)의 연구에서 분석된 신뢰도(Cronbach α)는 각 하위 영역이 .60이상이었으며(영재학생 집단),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1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의 신뢰도는 정서인식 및 표현이 .65, 감정이입이 .83, 정서의 사고촉진이 .84, 정서지식의 활용이 .76, 정서조절이 .60이었다. 정서지능 검사도구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3)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옥분 등(1996)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임정하, 정옥분, 2004; 조선화 등, 2007, 재인용). 이 척도는 중, 고등학생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양육태도 문항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각각 30문항,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불신(신뢰), 존중, 가르침, 관심의 4개

표 3
정서지능 검사지(백은주, 2005)

영역	내용	문항수
정서인식 및 표현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8
감정이입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내가 타인의 감정을 나의 것 같이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8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지, 정서를 활용하여 기억,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	8
정서지식의 활용	감정이나 기분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인간관계 향상에 얼마나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	8
정서조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내용	8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소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는 .73-.78이었고, 반분신뢰도는 .85였으며,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소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는 .71-.83, 반분신뢰도는 .85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도가 .91이며,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도는 .93이었다. 각 하위요소별 신뢰도는 어머니의 경우 신뢰의 경우 .85, 가르침은 .92, 관심은 .83, 존중은 .84이었으며, 아버지의 경우 신뢰가 .92, 가르침이 .85, 관심이 .76, 존중이 .65이었다. 이 도구의 요인과 내용은 <표 4>,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012년 3월, 영재교육 프로그램 교육 첫 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 각 설문의 응답 내용 및 분석 자

료는 연구자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최대한 솔직하게 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질문에 정답이 없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여 학생들이 '바람직한 답'에 표기하지 않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 빈도분석, 상관, 회기분석 등이 주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영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및 지각하고 있는 부모 양육행동은 어떠한가?

영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한 결과, 10개 문항 모두에서 4점 이상(그렇다)의 응답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이 4.36(SD=

표 4
아버지의 양육행동(조선화 등, 2007, pp.240-241)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불신	자녀의 말이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적하고 관여하며 자녀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를 움직이려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11
존중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녀의 의견이나 태도를 이해하고자 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자녀의 역량과 가능성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과 관련된 내용	8
가르침	자녀에게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가르치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기초 질서나 공공의식을 깨닫도록 이르는 등 인격교육과 관련된 내용	7
관심	자녀가 방과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있으며, 자녀의 교우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등 자녀의 생활 및 행동과 관련된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	4

표 5
어머니의 양육행동(조선화 등, 2007, p.241)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불신	자녀의 말이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적하고 관여하며 자녀의 뜻이 아닌 어머니의 뜻대로 자녀를 움직이려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11
존중	자녀의 감정이나 의견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며 자녀를 귀하게 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5
가르침	자녀에게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가르치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기초 질서나 공공의식을 깨닫도록 이르는 등 인격교육과 관련된 내용	7
관심	자녀를 정성으로 대하며 자녀의 하루일과 및 학교생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	4

.546)으로 설문에 참여한 영재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별과 학교급 간에는 자아존중감 지각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경우, 전체 평균이 3.76(SD= .537)이었으며, 각 영역별로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지식의 활용, 정서조절에서의 평균이 각각 3.58(SD= .535), 3.95(SD= .616), 3.99(SD= .601), 3.85(SD= .637), 3.42(SD= .537)이었다(표 6). 정서의 사고촉진, 감정이입 영역에서는 4점에 매우 근사하여 학생들이 이 영역에서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서지능 각 영역에 있어 성별, 학교급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부모 양육행동 중,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평균은 3.89(SD=.690)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평균은 4.10(SD=.545)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가르침, 신뢰(불신), 존중과 관련된 양육행동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에 비해 전체적으로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심과 관련된 양육행동(M=4.31, SD=.60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생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및 각 영역 간 Paired-t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양육행동 전체에 있어서 학생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111, df=90, p<.01$), 이 중 존중 영역은 $p<.05$ 수준에서, 관심 영역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보였다. 즉,

학생들은 양육행동에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존중과 관심을 더 많이 보여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2. 영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및 지각하고 있는 부모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영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및 부모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은 정적관계를 보였으며($r=.608$), 자아존중감과 아버지, 어머니 양육행동의 각각의 네 개 영역(신뢰, 존중, 가르침, 관심)에서 모두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서지능 역시 아버지, 어머니 양육행동의 네 개 요소 모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부모의 양육행동이 영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에 앞서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였다. 각 변인의 VIF 값이 1.160-1.144 분포에 있어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양병화, 2002).

회귀분석 결과, 영재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존중' ($\beta=.422, p<.001$)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신뢰' ($\beta=.450, p<.0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 전체 변량의 28.6%, 26.1%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버지의 존중과 어머니의 신뢰가 높다고 느낄수록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버지의 신뢰, 가

표 6 정서지능 검사 평균 및 표준편차

(n=91명)

영역	평균	표준편차
정서인식 및 표현	3.58	.535
감정 이입	3.95	.616
정서의 사고촉진	3.99	.601
정서지식의 활용	3.85	.637
정서조절	3.42	.537
전체	3.76	.452

* Likert 척도(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표 7
아버지의 양육행동 평균 및 표준편차

(n=91명)

영역		평균	표준편차	t
신뢰(불신)	아버지	4.01	.822	.930
	어머니	3.96	.672	
존중	아버지	3.85	.691	-2.068*
	어머니	4.01	.740	
가르침	아버지	4.09	.646	-1.954
	어머니	4.20	.596	
관심	아버지	3.57	.880	-8.098**
	어머니	4.31	.607	
전체	아버지	3.89	.690	3.111**
	어머니	4.10	.545	

* Likert 척도(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p<.05, **p<.01

표 8
정서지능, 자아존중감, 부모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정서 지능	자아 존중감	아버지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			
			신뢰	존중	가르침	관심	신뢰	존중	가르침	관심
정서지능										
자아존중감										
	.608**									
아버지 양육 행동	신뢰 (불신)	.474**	.403**							
	존중	.550**	.535**	.640**						
	가르침	.531**	.290**	.132	.371**					
	관심	.259*	.245*	.199	.425**	.495**				
어머니 양육 행동	신뢰 (불신)	.513**	.511**	.598**	.423**	.395**	.264*			
	존중	.617**	.445**	.299**	.485**	.491**	.325**	.637**		
	가르침	.670**	.370**	.352**	.433**	.671**	.333**	.421**	.610**	
	관심	.631**	.400**	.305**	.473**	.546**	.374**	.564**	.818**	.737**

*p<.05, **p<.01

르침, 관심과 어머니의 가르침, 관심, 존중은 영재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생의 정서지능은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가르침' ($\beta = .414, p < .001$)과 '신뢰' ($\beta = .280, p < .01$)가,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가르침' ($\beta = .450, p < .001$)과 '존중' ($\beta = .331, p < .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가르침과 신뢰요인은 변량의 47.2%를, 어머니의 가르침과 존중요인은 변량의 51.7%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

버지의 가르침과 신뢰,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과 존중이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 학생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관심과 존중, 어머니의 신뢰와 관심은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영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및 지각하고 있는 부모 양육에 대해 알아보고, 영재학

표 9
부모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정서지능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p	F	R ²	
자아존중감	아버지	신뢰 (불신)	.102	.868	.388	35.273**	.286
		가르침	.106	1.092	.278		
		관심	.021	.211	.834		
		존중	.422***	5.939	.000		
	어머니	신뢰 (불신)	.450***	5.608	.000	31.444**	.261
		가르침	.188	1.900	.061		
		관심	.165	1.503	.136		
		존중	.202	1.726	.088		
정서지능	아버지	신뢰 (불신)	.280**	2.719	.008	25.637**	.472
		가르침	.414***	4.850	.000		
		관심	-.137	-1.457	.149		
		존중	.217	1.970	.052		
	어머니	신뢰 (불신)	.177	1.869	.065	47.146**	.517
		가르침	.467***	4.997	.000		
		관심	.065	.428	.670		
		존중	.331**	3.544	.001		

* $p < .05$, ** $p < .01$, *** $p < .001$

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정서 지능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영재학생들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문항 모두에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그렇다)의 응답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 4.36(SD=.546)을 보여 설문에 참여한 영재학생들의 경우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일반학생들과 비교,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가치에 대한 문항에 4점 이상을 보여 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결과는 도구와 측정 영역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아존중감이 아닌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결과 비교적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여 윤초희 등(2004)의 연구, 박상표(2009)의 연구, 박혜원 등의 연구(2011)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영재학생들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지 않다는 Gross(1993, 2000)의 연구에서는 평균 IQ가 160이상인 매우 높은 지능을 가진 학생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지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비교가 어려우나, 추후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지능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서지능을 분석한 결과, 정서의 사고촉진, 감정이입, 정서지식의 활용, 이 세 영역에서는 4점에 매우 근사하여 학생들이 이 영역에서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3.42-3.58의 평균을 보여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백은주(2005)의 연구결과에서 영재학생들은 2.83-3.23의 평균 분포를 보이고 일반학생들은 2.64-2.93의 분포를 보여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영역의 점수가 3.42로, 백은주(2005)의 연구결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던 영역의 점수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 즉 높은 지능을 가진 영재학생들이 높은 정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배진호, 김연경, 김재경, 2004; Davis & Connell, 1985; Maddux, Scheiver, &

Bass, 1982).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아버지 양육행동은 5점 만점에 전체문항 3.89의 평균을 보였고, 가르침, 신뢰(불신), 존중, 관심 순서로 평균점수가 높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평균은 전체 문항은 4.10이었으며, 영역별로는 관심, 가르침, 존중, 신뢰(불신)의 순서로 평균점수가 높았다. 영재학생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네 영역 중 존중, 관심 영역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과거, 아버지는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은 여성의 사회진출 및 교육수준의 증가로 점차 변하고 있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La Rossa, 198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약 83%에 이르러(장재홍, 김태성, 김현주, 이호준, 2000), 여전히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존중 및 관심 영역에서는 어머니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기에는 아버지와의 애착정도가 학생의 학업 및 정서 수준과 상관이 높으며,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의 높은 양육참여가 자녀의 안정적인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버지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은 정적관계를 보였으며($r=.608$), 자아존중감과 아버지, 어머니 양육행동의 각각의 네 개 영역(신뢰, 존중, 가르침, 관심)에서 모두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서지능은 아버지, 어머니 양육행동의 네 개 요소 모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분석 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존중' ($\beta=.422$, $p<.001$)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신뢰' ($\beta=.450$, $p<.001$)가 영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가르침' ($\beta=.414$, $p<.001$)과 '신뢰' ($\beta=.280$, $p<.01$)이,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가르침' ($\beta=.450$, $p<.001$)과 '존중' ($\beta=.331$, $p<.01$)이 영재학생의 정

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부모의 존중과 신뢰가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정서지능에는 양쪽 부모의 가르침이 의미있는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한 임정하와 정옥분(2004)에 의하면, '가르침' 요소는 서구 양육이론 보다는 한국의 자녀양육 환경을 고려한 개념으로,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 한국적 양육행동의 강점이라는 견해에 근거하여 포함한 요소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가르침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평소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및 가정 내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즉, 핵가족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정교육 개념은 사라지고 있으나, 부모의 적절한 인격적 가르침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부모의 가르침이 여전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한국의 모든 영재 학생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지역의 많은 영재학생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설계, 수행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집단의 남학생과 여학생 성비가 2:1로 불균형하였다. 비록 통계 분석을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보다 명확한 결과 확인을 위하여 더 많은 수의 여학생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문 요약

본 연구는 과학 영재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광역시 소재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총 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응답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2년 3월,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부모양육행동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영재학생들은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10개 문항 모두에서 4점 이상(그렇다)의 응답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이 4.36(SD= .546)으로 설문에 참여한 영재학생

들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서지능 요소 중 정서의 사고촉진, 감정이입 영역에서는 4점에 매우 근사한 결과를 보여, 학생들이 이 영역에서 본인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아버지 양육행동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 평균이 3.89로 나타났으며, 그중 가르침, 신뢰(불신), 존중, 세 영역에서는 4.0(그렇다)에 근접하였으나 관심 영역에서는 평균3.57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평균은 4.10이었으며, 영역별로는 관심 4.31, 가르침 4.20, 존중 4.01, 신뢰(불신) 3.96의 순서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자아존중감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네 가지 영역(신뢰, 존중, 가르침, 관심) 모두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은 아버지, 어머니 양육행동의 네 개 요소 모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분석 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존중' ($\beta = .422, p < .001$)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신뢰' ($\beta = .450, p < .001$)는 영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가르침' ($\beta = .414, p < .001$)과 '신뢰' ($\beta = .280, p < .01$),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가르침' ($\beta = .450, p < .001$)과 '존중' ($\beta = .331, p < .01$)이 영재학생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이 결론 및 논의에 제시되었다.

참고 문헌

- 김세루, 홍지명, 홍혜경(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9(2), 113-132.
- 김영숙(1999).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3(1), 69-98.
- 김은경, 유가효(2002). 아버지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5(1), 33-43.
- 문용린(1999). 인성교육을 위한 정서지능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59(12), 31-98.
- 문용린(2011). 문용린교수의 정서지능 강의. 북스넷: 서울.
- 박상표(2009). 영재남아의 자존감과 문제행동(신체증상

및 공격성)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200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2), 161-182.

박영애, 최은경(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21-238.

박혜원, 하정연, 문지혜(2011). 영재와 일반 남아의 자존감 비교 및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별 신체증상 및 공격성 분석. *영재교육연구*, 22(1), 83-105.

배진호, 김연경, 김재영(2004).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과학적 태도 분석과 이들의 상관관계 연구. *초등과학교육*, 23(1), 1-7.

백은주(2005).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서지능과 과학태도 비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현숙, 광미용, 이성실(2006). 고등학교 과학영재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유형과 학업수행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학교심리학회지: 학교*, 3(2), 55-67.

손화희, 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11(1), 58-71.

양병화(2002). 다변량 자료 분석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서울.

오영미(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선영, 정혜숙(2010).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4(5), 27-54.

윤초희, 윤여홍, 김홍원(2004). 지적으로 우수한 초등 영재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177-196.

이군현(1990). 과학영재 학생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학연구*, 28(1), 131-144.

이광자(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하, 정옥분(2004).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1(4), 55-73.

임화성(2006). 부모의 언어상호작용 유형과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재홍, 김태성, 김현주, 이호준(2000).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현황과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청소년 상담연구*, 9(1).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전병재(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총론*, 11, 107-129.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1996).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모색.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보고서*.

조선화, 최명선, 박희현(2007). 청소년 연구자를 위한 심리발달 척도. *교문사*.

조석희(1987). 취학 전 영재의 특성 및 부모의 지도실태와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개발* 50, 60-64.

조석희, 한순미(1986). 취학 전 영재의 특성 및 부모의 지도실태와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lascovich, J., &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 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Bloom, B. (1985). Generalizations about talent development. In B. Bloom(Eds.),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Ballentine Books.

Colangelo, N., & Kelly, K. R. (1983). A study of student, parent, and teacher attitudes toward gifted programs and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27, 107-110.

Clark, B. (1997). *Growing up gift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Davis, G. A., Rimm, S. B., & Siegle, D. (2011).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6th ed). New York : Pearson.

Davis, H. B., & Connell, J. P. (1985). The effect of aptitude and achievement status on the self-esteem. *Gifted Child Quarterly*, 29(3). 131-135.

Forsyth, P. (1987). A study of self-concept, anxiety, and security of children in gifted: French immersion, and regular classes.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21, 153-156.

Gallucci, N. T., Middleton, G., & Kline, A. (1999). Intellectually superior children and behavioral problems and competence. *Roeper Review*, 22, 18-21.

Garland, A. F., & Ziegler, E. (1999).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highly intellectually gifted youth. *Roeper Review*, 22, 41-47.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Gross, M. U. M. (1993). *Exceptionally gifted children*. New York: Routledge.

Gross, M. U. M. (2000). Issues in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exceptionally and profoundly gifted individuals. In K. A. Heller, F. J. Monks, R. J. Sternberg, & R. F. Subotni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ness and talent* (2nd ed., pp. 179-192). New York: Elsevier.

Hollingsworth, L. S. (1942). *Children above 180 IQ Stanford-Binet: Origin and development*. New York: World Book.

La Rossa, R. (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7, 451-457.

Lea-Wood, S. S., & Clunies-Ross, G. (1995). Self-esteem of gifted adolescent girls in Australian schools. *Roeper Review*, 17(3), 195-97.

Maddux, C. D., Scheiver, L. M., & Bass, J. E. (1982). Self-concept and social distance in gifted children. *Gifted Child Quarterly*, 26, 77-81.

Mayer, J. D., & Salovey,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cognition, and personality. *Intelligence*, 9, 185-221.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eter Salovey and David J. Sluyter(Eds.). *Emotional Implications*. New York: Basic Books.

Richardson, T. M., & Benbow, C. (1990). Long-term

effects of acceleration on the social-emotional adjustment of mathematically precocious youth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464-470.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alovey, P., & Sluyter, D. J. (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New York: Harp Collins Pub.

Stephanie, M. (1990). *The magic of encouragement*. Willan Morrow & Company, Inc.

Terman, L. M. (1925).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1.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Van Tassel-Baska, J. (1989). The role of the Family in the success of disadvantaged gifted learner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3, 22-36.